

# 國語의 始發格 ( Source)과 到達格 ( Goal)에 對한 研究

吳 昇 勳 \*

## 目 次

- I. 序 論
- II. 本 論
  - 1) 先行研究
  - 2) 移動動詞의 格
  - 3) 方向性 意味資質을 갖는 動詞類의 格
  - 4) 상태변화 동사의 格
- III. 結 論

## I. 序 論

格의 研究는 지금까지 尙한 이론적 변모를 거치면서 다양한 방법론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 表面構造(Surface Structure)의 格標識(Case Marker)에 만 매달려 지나칠 정도로 형태 위주의 分析만을 시도했던 과거의 연구업적들은 格文法(Case Grammar) 理論에 입각하여 格을 “名詞가 敘述語에 대해 가지는 統辭·意味的 關係”<sup>1)</sup>로 이해할 경우 그 說明力을 상실하고 만

---

\* 학생회원 4학년

---

1) 이익섭, 임흥빈 <국어문법론 학연사> 1983.

다. 格文法(Case Grammar) 理論에 의하면 하나의 文章은 하나의 命題(Proposition)와 樣相(Modality)으로 성립되며 命題(Proposition)는 敘述語에 의해 요구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格範疇(Case Category)들과 敘述語로 성립된다.<sup>2)</sup>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格의 결정은 文章의 意味解釋(Semantic interpretation)에 결정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여러 文法現象을 說明하는 데에도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個別言語의 格을 設定하고 각 格의 特性들을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작업이 된다. 本稿는 그동안 散發的으로 定義되어 왔던 國語의 여러 格들 가운데 論議의 초점을 始發格(Source)과 到達格(Goal)<sup>3)</sup>에 限定시켜 이 格들이 갖는 精確한 外延과 特性들을 살펴보는 데에 그 目的을 둔다.

## Ⅱ. 本 論

### Ⅱ-1. 先行研究

始發格(Source)과 到達格(Goal)에 대해서만 다룬 先行研究는 없으나, 格文法(Case Grammar) 理論의 창시자인 Fillmore의 論文에서 간단한 定義를 찾아볼 수 있다.<sup>4)</sup> 이 두 格은 초기 이론에서는 設定되지 않았으나 후에 設定된 格들로 Fillmore는 Source에 대해서 “뭔가 移動할 때의 起點이 되는 장소”로 Goal에 대해서 “뭔가 移動할 때의 到着點이 되

2) C. J. Fillmore <The case for case> 1968.

3) source와 Goal에 대한 用語는 각각각색이나 本稿에서는 이를 쓰기로 한다.

4) C. J. Fillmore (남용우 外 3人 共譯), <어휘정보의 종류> (『격문법이란 무엇인가』 율유문화사, 1987)

는 장소”로 記述하고 있다.

國內의 研究로는 성광수<sup>5)</sup>와 김영희<sup>6)</sup>의 업적을 代表的인 것으로 들 수 있는데 성광수는 國語의 基本格으로 爲格(Agent), 與格(Dative), 具格(Instrument), 客格(Object), 共格(Comitative), 源格(Source), 達格(Goal), 處格(Locative), 時格(Time), 路格(Path) 등 10개의 格을 들고 있으며 源格(Source)에 대해서 “事物에 지시되는 장소의 格으로 출발점을 표시한다”고 定義하고 達格(Goal)에 대해서는 “事物에 지시되는 행위나 변화의 到達의 格으로 目標點을 뜻한다”고 定義하고 있다.

김영희는 國語의 格을 행위격(A), 경험격(E), 도구격(I), 수여격(D), 대상격(O), 시원격(So), 도달격(G), 처소격(L), 시간격(T), 경과격(P) 등 10개의 格으로 設定하고 있으나, 이 格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先行 研究들은 시기적으로 이론적 도입단계에 있는 것들로 國語의 전체적인 格들을 說明하는 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아직은 각 格들에 대한 個別的인 研究는 별로 눈에 띄이지 않는다.<sup>7)</sup>

## II - 2 . 移動動詞의 格

格文法(Case Grammar)에 提示되고 있는 基礎規則은 深層構造(Deep Structure) 위의 範疇順位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國語의 構造記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範疇記號의 順位를 바꾸어 나타낼 수 있다.<sup>8)</sup>

5) 성광수, 〈國語 格文法 試論 I〉 〈인문논집 19〉 1974.

6) 김영희, 〈한국어 조사류어의 연구〉, 〈문법연구 제1집〉 1986.

7) 이에 대한 연구는 김영희 〈한국어의 격문법 연구〉 연세대 대학원 1973이 더 있으나 필자가 구해 보지 못했음을 밝혀 둔다.

8) 성광수 「국어 조사의 연구」 형설출판사 1979.

- (1) ㄱ. S → P + M  
 ㄴ. P → C<sub>1</sub> … C<sub>n</sub>  
 ㄷ. C → NP + K

이러한 基礎規則을 세워놓고 文章 內에서 名詞의 출현은 敘述語의 특성에 의해 결정됨을 想起한다면 始發格(Source)과 到達格(Goal)의 資格을 갖는 名詞는 一次的으로 空間移動을 表示하는 移動動詞와 함께 출현한다고 할 수 있다.

- (2) ㄱ. 나는 제주에서 떠난다.  
 ㄴ. 나는 서울로 간다.

위의 例文 (2) ㄱ~ㄴ에서 보듯이 ‘제주’는 移動動詞 ‘떠나다’가 나타내는 행위의 출발점을 表示하고 있으며, ‘서울’은 移動動詞 ‘간다’가 나타내는 행위의 도착점을 表示하고 있으므로 敘述語에 대해 各各 始發格(Source)과 到達格(Goal)을 表示하는 名詞들이다.

洪允杓<sup>9)</sup>도 表面構造(Surface Structure)를 中心으로 方向性을 表示하는 格에 대해 論議하면서 敘述語가 [+motion]의 意味資質(Semantic Feature)을 가지고 名詞가 [+place]의 意味資質(Semantic Feature)을 가질 때 이 名詞는 方向性을 表示하는 格의 資格을 갖게 된다고 敘述하고 있는데, 이 研究는 移動動詞와 共起(Co-Occurrence)하는 名詞에 始發格(Source)과 到達格(Goal)의 資格을 줄 수 있는 근거를 提示해 준다. 移動動詞와 共起(Co-Occurrence)하는 名詞들에 始發格(Source)과 到達格(Goal)을 設定할 수 있는 例들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

9) 洪允杓 <方向性 표시의 格> <국어학 6> 1978.

(3) 가. 철수는 학교로 뛰어간다.

Goal

나. 영자는 집에서 나갔다.

Source

다. 나는 농촌에서 도시로 간다.

Source Goal

그러나 移動動詞라 할지라도 始發格(Source)과 到達格(Goal)은 敘述語의 특성에 의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4) 가. 나는 간다.

나. 나는 서울로 간다.

다. 나는 제주에서 떠난다.

르. 나는 제주에서 서울로 간다.

위의 例文 (4) 가~르 은 ‘가다’와 ‘떠나다’라는 移動動詞에 대한 統辭的 構成으로 (4) 가는 始發格(Source)과 到達格(Goal)을 表示하는 名詞가 하나도 出現하지 않은 例이고 (4) 나 은 到達格(Goal)의 名詞만, (4) 다 은 始發格(Source)의 名詞만 出現한 경우이고 (4) 르 은 始發格(Source)과 到達格(Goal)의 名詞가 전부 出現한 例인데 위의 例文들에서 始發格(Source)과 到達格(Goal)을 표시하는 명사가 전혀 드러나지 않거나 하나만 드러나더라도 非文法的이거나 어색한 文章이 되지 않음을 볼 때 始發格(Source)과 到達格(Goal)은 移動動詞의 특성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格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 移動動詞의 格構造(Case Frame)는 [A(S)(G)\_]가 되며, 이 두 格의 出現은 話用論的인 상황에 크게 의존해서 출

현한다. 例文 (4) ㄱ~ㄹ을 보면 文章의 意味가 ㄱ<ㄴ, ㄷ<ㄹ의 순서로 뚜렷해져 가고 受容性(Acceptability)의 정도가 더해감을 알 수 있는데 모든 발화가 언어적 불균형 상황, 혹은 원인적 의문상황을 前提로 하여 나타난다는 입장<sup>10)</sup>에서 보면 어떤 발화를 유도했을 것으로 보이는 원인적 의문문을 만들어 봄으로써 그 발화의 초점(Focus)을 파악할 수 있다.

(4)' ㄱ: 뭐하니?

ㄴ: 어디 가니?

ㄷ: 어디를 출발하니?

ㄹ: 어디에서 어디로 가니?

위의 例文 (4)' ㄱ~ㄹ'은 (4) ㄱ~ㄹ과 각기 짝을 이루는 원인적 의문문들로 (4) ㄱ~ㄹ은 각기 다른 원인적 의문문에서 유도된 발화들을 알 수 있다. 즉, 이렇게 각기 다른 언어적 불균형 상황에서 話者에 의해 초점(Focus)이 다르게 놓여지게 되어 이 초점(Focus)에 따라 始發格(Source)과 到達格(Goal)의 출현이 결정되어 表面構造(Surface Structure)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근거를 Fillmore의 論文<sup>11)</sup>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는 어느 文章의 前提(Presupposition)란 “文章을 질문, 명령, 주장, 감정 표현 등 어떤 기능을 위해서 사용해도 그에 앞서 충족시켜야 하는 조건”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例文을 들어 說明하고 있다.

10) 김종택 <國語 話用論> 형설출판사, 1982.

11) C. J. Fillmore (남용우 外 3人 共譯) <어휘정보의 종류> (『격문법이란 무엇인가』, 을유문화사 1987)

(5) Please open the door.

위의 文章이 명령문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발화목표가 어느 문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있고 또한 발화행위 (Speech Act)의 時點에서 그 문이 닫혀있어야 한다는 前提 (Presupposition)가 필요하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移動動詞의 始發格 (Source)과 到達格 (Goal)의 출현도 ‘언어적 불균형 상황’을 前提 (Presupposition)로 하여 說明이 가능함을 이로써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隨意的이든 필수적이든 表面構造 (Surface Structure)에 始發格 (Source)과 到達格 (Goal)의 資格을 가지는 名詞가 출현할 경우에 대해서 論議했으나 格은 노출되지 않은 채로 표현될 수도 있다. 송병학<sup>12)</sup>은 道具格 (Instrument)이 動詞에 통합되어 있는 경우를 論議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다.

(6) ㄱ. 옷을 솔질하다.

ㄴ. 나무를 톱질하다.

즉, 道具格 (Instrument)의 資格을 가지는 名詞가 이미 動詞에 들어 있음으로 해서

(7) ㄱ. \* 옷을 솔로 솔질하다.

ㄴ. \* 나무를 톱으로 톱질하다.

와 같이 道具格 (Instrument)의 名詞가 드러날 경우 非文이 된다는 것인데, 始發格 (Source)과 到達格 (Goal)은 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즉, (6)

---

12) 송병학, 〈한국어의 도구격〉 〈언어문학 연구 Vol.1〉 1976.

ㄱ~ㄴ은

- (8) ㄱ. 술(로) + 털다  
    ㄴ. 톱(으로) + 켜다

와 같은 의미구조에서 派生語 形成過程을 거치면서 道具格(Instrument)의 名詞가 자연스럽게 動詞에 흡수되어 道具格(Instrument)이 표면에 드러날 필요가 없으나 移動動詞의 경우는

- (9) ㄱ. 전철이 다리를 통과했다.  
    ㄴ. 영수가 개울을 건너갔다.

의 경우 例文(9) ㄱ~ㄴ의 敘述語 ‘통과하다’와 ‘건너다’는 移動動詞이므로 隨意的으로나마 始發格(Source)과 到達格(Goal)의 資格을 가지는 名詞가 출현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런 統辭的 構成을 조작해 보면

- (10) ㄱ. \* 전철이 다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통과했다.  
    ㄴ. \* 영수가 개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건너갔다.

와 같이 非文이 되어 버리고 만다. 道具格(Instrument)의 경우는 동사에 統合되어 있어서 출현하지 않았으나 始發格(Source)과 到達格(Goal)의 경우는 그렇지도 않은데 출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動詞가 나타내는 행위의 출발점과 도달점이 對象物(Object)의 한 공간 내에 존재함으로 해서 言語的으로 始發格(Source)과 到達格(Goal)을 표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의 例文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1)ㄱ. 나는 책상에 구멍을 뚫었다.

ㄴ. 총알이 영수의 다리를 관통했다.

例文 (11) ㄱ~ㄴ의 動詞 ‘뚫다’와 ‘관통하다’에 대해서도 動詞가 나타내는 의미내용의 출발점과 도착점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나 이 두 지점이 對象物(Object) 안에 공존함으로써 始發格(Source)과 到達格(Goal)의 출현이 불필요하다. 만약 始發格(Source)과 到達格(Goal)이 출현한 경우를 想定해보면

(12)ㄱ. ? 나는 책상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구멍을 뚫었다.

ㄴ. \* 총알이 영수의 다리를 앞에서 뒤로 관통하였다.

와 같이 아주 어색한 文章이 되거나 非文이 되어 버린다. 따라서 이러한 동사류의 格構造(Case Frame)는 [ A (L) O \_ ]로 指定할 수 있다.

### II - 3. 방향성 의미자질 (directional semantic feature)을 갖는 動詞類의 格

II - 2에서는 移動動詞의 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始發格(Source)과 到達格(Goal)은 方向性 意味資質(Directional Semantic Feature)을 갖는 動詞類에서도 設定할 수 있다. 方向性 意味資質(Directional Semantic Feature)을 갖는 動詞類는 시원역을 明示하는 起點動詞와 도달역을 明示하는 到達動詞와 기점과 도달을 동시에 공유하는 起點到達動詞 등 세 가지 모델을 세울 수 있다.<sup>13)</sup> 이런 動詞類에서 起點을 표시하는 名詞는 始發格(Source)으로, 到達을 표시하는 名詞는 到達格(Goal)으로 인정할 수 있다.

13) 천기석 <방향성 동사류의 통사미론적 특성> <어문론총 13.14> 1981.

(13) ㄱ. 은주는 철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ㄴ. 나는 영기에게 편지를 보냈다.

ㄷ. 동윤이는 화분을 방에서 마당으로 옮겼다.

위 例文 (13) ㄱ~ㄷ의 敘述語들을 各各 起點動詞, 到達動詞, 起點到達動詞로 (13)-ㄱ의 ‘철수’는 동사 ‘받다’가 나타내는 행위의 대상물(Object)의 출발점, (13)-ㄴ의 ‘영기’는 ‘보내다’라는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대상물(Object)의 도달점, (13)-ㄷ의 ‘방’과 ‘마당’은 各各 ‘옮기다’라는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대상물의 출발점과 도달점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方向性 意味資質(Directional Semantic Feature)을 가진 동사류에서도 始發格(Source)과 到達格(Goal)을 파악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方向性 意味資質(Directional Semantic Feature)을 가진 동사류의 始發格(Source)과 到達格(Goal)은 II-2에서 서술한 移動動詞의 것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14) ㄱ. 나는 제주에서 서울로 간다.

ㄴ. 은주는 철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ㄷ. 나는 영기에게 편지를 보냈다.

ㄹ. 동윤이는 화분을 방에서 마당으로 옮겼다.

위의 例文 (14)-ㄱ은 앞서 서술한 이동동사의 예이고 (14)-ㄴ~ㄹ은 각각 起點動詞, 到達動詞, 起點到達動詞의 例들을 다시 引用한 것인데 (14)-ㄱ의 ‘가다’에 대한 始發格(Source)과 到達格(Goal)의 명사인 ‘제주’와 ‘서울’은 행위자(Agent)의 이동공간을 표시하고 있으나, (14)-ㄴ~ㄹ의 ‘철수’, ‘영기’, ‘방’, ‘마당’은 각각 動詞의 대상물(Object)의 이동공간을 표시 한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方向性 意味資質(Directional Sem-

antic Feature)을 가진 동사류의 경우 始發格(Source)과 到達格(Goal)을 나타내는 名詞는 이동동사의 경우와는 달리 대상물(Object)의 이동공간을 나타내는 점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동사류들은 表面構造(Surface Structure)에 起點動詞의 경우 到達格이, 到達動詞의 경우 始發格이 반드시 생략되어 나타난다. 먼저 起點動詞의 경우를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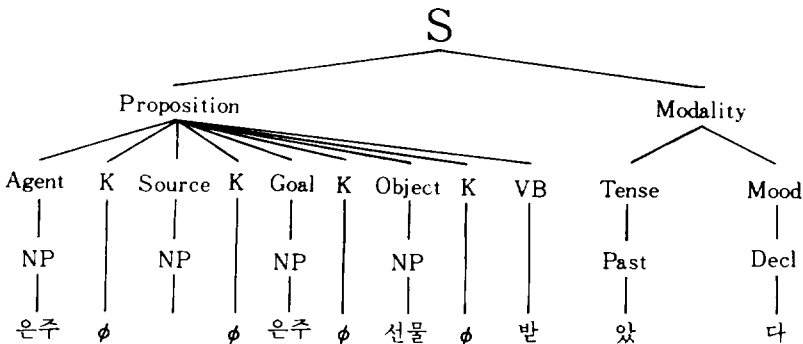
(15) 은주는 철수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에서 보듯이 대상물(Object) 이동의 출발점인 ‘철수’는 明示되어 있으나 도달점은 ‘은주’가 되어 행위자(Agent)와 동일한 名詞이므로 반드시 생략되어 表面構造(Surface Structure)에 나타난다. 만약 도달점을 明示한다면

(16) \*은주는 철수로부터 은주에게 선물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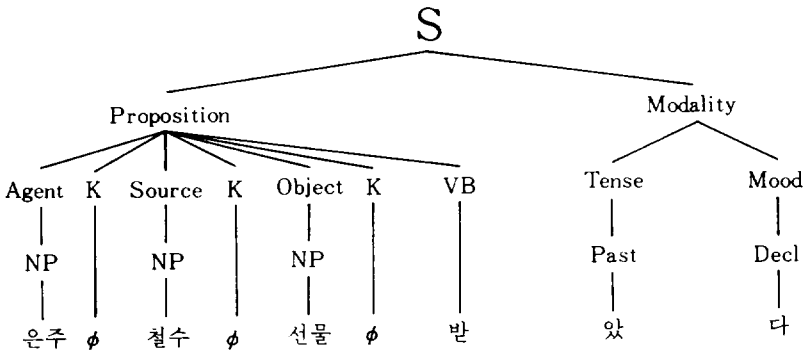
와 같은 非文이 되고 만다. 따라서 이런 起點動詞類의 예들은

(17)



와 같은 深層構造 (Deep Structure)에서 到達格 (Goal)의 생략 규칙 적용을 받아 다음과 같은 表面構造 (Surface Structure)로 유도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18)



이러한 논리는 到達動詞類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다.

(19) 나는 영기에게 편지를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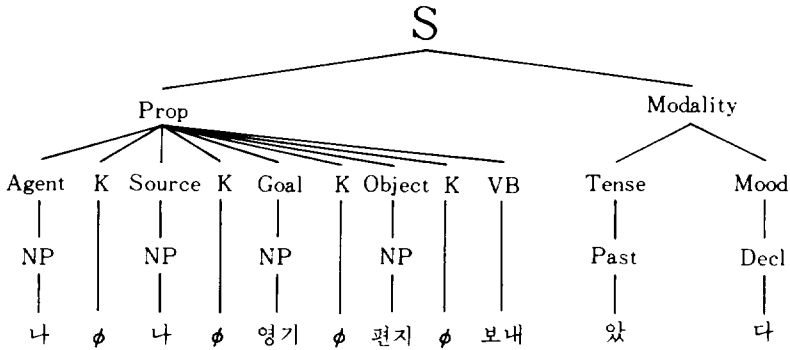
위의 例文을 보면 ‘보내다’라는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의 대상물 (Object)의 출발점은 ‘나’이고 도달점은 ‘영기’이지만, 도달점을 나타내는 ‘영기’만 表面構造 (Surface Structure)에 드러날 뿐 출발점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 경우는 행위자 (Agent)와 始發格 (Source)을 나타내는 名詞가 같기 때문에 만약 始發格 (Source)을 設定한다면

(20) \* 나는 나로부터 영기에게 편지를 보냈다.

와 같은 非文이 되어 버리고 만다. 따라서 到達動詞類의 始發格 (Sour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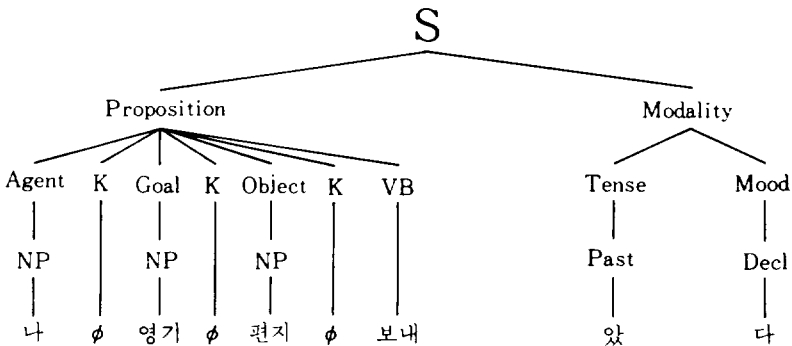
과 到達格 (Goal)은 다음과 같은 深層構造 (Deep Structure)에서 유도되어 表面構造 (Surface Structure)에서 유도되어 表面構造 (Surface Structure)로 나오게 된다고 할 수 있다.

(21)



와 같은 深層構造 (Deep Structure)에서 始發格 (Source)의 생략을 거쳐 表面구조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 表面構造 (Surface Structure)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22)



이상과 같은 論議에서 볼 때 起點動詞類와 到達動詞類의 格構造 (Case Frame)는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르게 표시될 수 있다.

- (23) ㄱ. [ A S O \_ ] : 기점동사류
- ㄴ. [ A G O \_ ] : 도달동사류

한편 起點到達動詞類의 始發格 (Source)과 到達格 (Goal)은 前述한 動詞類들과는 달리 출현이 자유롭다.

- (24) 동윤이는 화분을 방에서 마당으로 옮겼다.

위의 例文을 보면 起點到達動詞의 始發格 (Source)과 到達格 (Goal)이 表面構造 (Surface Structure)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到達格 (Goal)의 名詞는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 (25) ㄱ. 동윤이는 화분을 [                    ] 마당으로 옮겼다.
- ㄴ. \*동윤이는 화분을 방에서 [                    ] 옮겼다.

위의 例文을 보면 始發格 (Source) 名詞의 자리를 공란으로 비워 두어도 文法的인 文章이 되지만, (25)-ㄴ의 경우 到達格 (Goal) 名詞의 자리를 비움으로써 非文法的인 문장이 되어버리는 것을 보면 到達格 (Goal)은 起點到達動詞類의 경우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格으로, 이 動詞類의 格構造 (Case Frame)는 [ A O (S) G \_ ]로 指定할 수 있다.

#### II - 4. 상태변화 (change of state) 동사류의 格

지금까지는 행위자 (Agent)나 대상물 (Object)의 이동을 나타내는 格에 대해 敘述하였는데 始發格 (Source)과 到達格 (Goal)의 개념을 상태 변화 (Change of State) 동사의 경우에도 설정할 수 있다. 성광수는 達格 (Goal)을 정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例文을 들고 있다.<sup>14)</sup>

(26) 김 사장은 무일푼에서 백만장자까지 되었다.

즉 동사가 나타내는 일정한 범위내의 到達을 나타내는 格이 達格으로 변화를 입기 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名詞와 변화 후의 상태를 나타내는 名詞는 각각 始發格 (Source)과 到達格 (Goal)의 資格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상태변화 (Change of State) 동사의 始發格 (Source)과 到達格 (Goal)은 敘述語가 [+상태변화]의 意味資質 (Semantic Feature)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출현할 수 있다.

- (27) ㄱ. 김차장이 부장으로 승진하였다.  
 ㄴ. 영자는 창녀로 타락하였다.  
 ㄷ. 김진사는 노비로 몰락하였다.  
 ㄹ. 숙희가 선생이 되었다.

例文 (27) ㄱ~ㄹ의 敘述語들은 모두 상태변화를 나타내는 동사들로 ‘부장’, ‘창녀’, ‘노비’, ‘선생’은 일정한 범위 내의 도달을 나타내는 名詞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서술한 이동동사나 方向性 意味資質 (Directional Semantic feature)을 가진 동사류들과는 달리 상태변화 (Change of State) 동

14) 성광수, 「국어조사의 연구」 형설출판사) 1979.

사에서 도달격 (Goal)은 필수적인 格이 됨을 다음의 여러 例文들을 통해 알 수 있다.

(28) 김차장이 { 부장으로  
전무로 } 승진하였다.  
\* ϕ

(29) 영자는 { 창녀로  
패륜아로 } 타락하였다.  
\* ϕ

(30) 김진사는 { 노비로  
상놈으로 } 몰락하였다.  
\* ϕ

(31) 숙희가 { 선생이  
선생으로 } 되었다.  
\* ϕ

위의 例文에서 보면 (28)~(31)에서 도달격 (Goal)의 名詞가 출현한 경우 아주 자연스러운 의미전달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文章의 의미해석에 영향을 주거나 非文法的인 文章이 되어 상태변화 (Change of State) 동사에서 도달격 (Goal)의 資格을 가지는 名詞의 출현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태변화 (Change of State) 동사의 格構造 (Case Frame)는 일단 [ E (S) G - ]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시발격 (Source)이 수의적인 格이라는 것은 한가지 유보적인 사항을 전제로 한다.



- (32) ㄱ. 김차장이 [            ] 부장으로 승진하였다.  
 ㄴ. 영자는 [            ] 창녀로 타락하였다.  
 ㄷ. 김진사는 [            ] 노비로 몰락하였다.  
 ㄹ. 숙희가 [            ] 선생이 되었다.

위의 例文을 보면 시발격(Source)의 名詞가 출현할 자리를 비워두어도 非文이 되지 않으나

- (33) ㄱ. 물이 얼음이 되었다.  
 ㄴ. \* [     ] 얼음이 되었다.

와 같은 例를 보면 시발격(Source)의 名詞가 출현하지 않음으로 해서 非文이 되고 만다. 이것은 例文(32) ㄱ~ㄹ 경우 상태변화의 경험자(Experiencer)가 표면구조(Surface Structure)에 드러나 그 名詞가 상태변화의 출발점인 동시에 경험자(Experiencer)이므로 시발격의 名詞가 수의적으로 출현한 것이나 (33) ㄱ~ㄴ의 경우는 그런 경험자가 없으므로 상태변화의 출발점을 표시하는 시발격의 名詞가 반드시 출현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관점은 다음의 例文에서도 그 정당성을 입증받을 수 있다.

- (34) ㄱ. 황무지가 옥토가 되었다.  
 ㄴ. \* [     ] 옥토가 되었다.

- (35) ㄱ. 시골이 도시로 변했다.  
 ㄴ. \* [     ] 도시로 변했다.

위의 例文들은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내용의 경험자(Experiencer)를 설정

할 수 없는 경우로 格構造(Case Frame)는 [ SG \_ ]가 된다. 바꾸어 말하면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내용의 경험자를 설정할 수 있어서 상태변화의 출발점을 경험자(Experiencer)가 대신할 수 있으면 시발격(Source)을 표시하는 名詞는 表面構造(Surface Structure)에 나타나지 않으나, 그 경험자(Experiencer)가 없을 경우에는 시발격(Source)의 名詞가 반드시 表面構造(Surface Structure)에 출현해야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는 조건 아래 상태변화(Change of State) 동사의 시발격(Source)의 수의적 성격이 설명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상태변화(Change of State) 동사의 格構造(Case Frame)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다.

- (36) ㄱ. [ E (S) G \_ ]  
 ㄴ. [ SG \_ ]

### Ⅲ. 結 論

本稿는 既存의 연구업적에 기대면서 國語의 시발격(Source)과 도달격(Goal)에 대한 論議를 전개하여, 비록 主題의 참신성이 없었다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有意味한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既存의 연구성과와 마찬가지로 國語의 이동동사와 共起하는 名詞들에 시발격(Source)과 도달격(Goal)의 자격을 줄 수 있었으며, 이동동사의 경우 이 두 格의 출현은 話用論的인 상황의 영향을 받아 출현하는데 그것은 언어적 불균형 상황에서 話者의 초점(Focus)이 놓여지는 자리가 달라 시발격(Source)과 도달격(Goal)의 출현은 수의적인 것이 된다. 또 시발격(Source)과 도달격(Goal)을 나타내는 名詞는 동사가 나타내는 행

위의 대상물(Object)의 양끝에 共存할 경우 言語적으로 표현할 필요가 없  
어 표면구조(Surface Structure)에 드러나지 않는다.

둘째, 이동동사의 시발격(Source)과 도달격(Goal)의 名詞가 행위자  
(Agent)의 이동공간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 방향성 의미자질(Directional  
Semantic Feature)을 갖는 동사류에서 시발격(Source)과 도달격(Go-  
al)의 자격을 갖는 名詞는 대상물(Object) 이동의 출발점과 도착점을 표  
시하며 표면구조(Surface Structure)에서 起點動詞類의 경우 도달격이, 到  
達動詞類의 경우 시발격이 반드시 생략되어 기점동사류의 경우 [ASO\_]  
로 도달동사류의 경우 [AGO\_]로 格構造를 설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起點  
到達動詞類의 경우는 시발격(Source)의 名詞는 수의적으로 表面構造(Su-  
rface Structure)에 출현할 수 있으나, 도달격의 명사는 필수적으로 출현  
해야 되는 제약이 있어 格構造(Case Frame)를 [AO(S)G\_]로 지  
정할 수 있었다.

셋째, 상태변화(Change of State) 동사의 경우 변화의 출발점과 도달점  
을 표시하는 명사는 시발격과 도달격의 자격을 가지며 이 동사류의 경우 도  
달격은 필수적인 格이 되고 시발격의 名詞는 상태변화 경험자(Experiencer)  
의 존재 有無에 따라 수의적인 格임을 알 수 있어 두 종류의 格構造(Case  
Frame) [E(S)G\_], [SG\_]를 가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이로써 국어의 시발격과 도달격에 대한 究明이 완결되는 것은 아니  
다. 序論에서도 밝혔듯이 本稿는 시발격과 도달격의 設定이 國語에서 가능함  
을 살펴보는데 目的을 두었기 때문에 남겨둔 과제로 國語의 경우와 같이 助  
詞가 대단히 발달해 있고 그 실현양식이 다양한 언어의 경우 格을 표시하는  
格助詞의 표면구조에서의 미세한 의미차이를 究明하는 어려운 작업이 있음  
을 밝혀둔다.

## 參 考 文 獻

- 김영희, (1986) 《한국어 조사류어의 연구》, 《문법연구 제 1 집》
- 김종택, (1982) 《國語 話用論》 형설출판사.
- 성광수, (1974) 《國語 格文法 試論 I》, 《인문논집 19》  
, (1979) 《국어 조사의 연구》, 형설출판사.
- 이익섭·임홍빈, (1983) 국어문법론, 학연사.
- 남용우外, (1987) 《격문법이란 무엇인가》, 을유문화사.
- 송병학, (1976) 《한국어의 도구격》, 언어문학연구 Vol. 1.
- 천기석, (1981) 《방향성 동사류의 통사·의미론적 특성》  
어문론총 13·14
- 홍윤표, (1978) 《方向性 표시의 格》, 국어학 6.
- C. J. Fillmore (1968) 《The case for case》